

20
24
VER
/

이
채
문
—
홍
성
민

공
저



문체원

수능
꼭어 코딩

학습계획표

이 교재는 24일 동안 공부할 수 있게 계획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람마다 공부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상보다 느리게 진도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32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공부 계획표를 만들었습니다.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일차	6일차	7일차	8일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일차	10일차	11일차	12일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일차	14일차	15일차	16일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7일차	18일차	19일차	20일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1일차	22일차	23일차	24일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5일차	26일차	27일차	28일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9일차	30일차	31일차	32일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차례>

독서편	6
읽기이론	7
Day 1 (수능독서의 본질)	8
수능 분석과 두 가지 생각	8
독서는 선택의 문제다	16
정보: 마인드맵과 이항대립	18
원칙은 단순하다. 잘 읽으면 잘 맞는다.	24
Day 2 (문장읽기 전략)	26
문장읽기 전략_ 쉬운 것에 집중하자.	26
문장읽기 전략_ 주어와 서술어 찾기	28
문장읽기 전략_ 수식 처리	32
문장읽기 전략_ 수식 처리	38
Day 3 (문단과 글)	42
구조독해_ 예시를 알아보자	42
구조독해_ 인과관계에 대하여	45
구조독해_ 비교관계에 대하여	47
구조독해_ 나열에는 순서가 없다.	50
미시독해_ 아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	51
Day 4 (독해와 추론적 사고)	54
양과 질	54
변화와 불변	56
시간과 공간	58
추론과 글의 논리적 패턴	61
변형문제	63
문제 구성에 대하여	64
Day 5	64
문제풀고 해야할 일	65
01. 2021학년도	66
Day 6	68
Day 7	70
Day 8	74
02. 2020학년도	78
Day 9	78
Day 10	80
Day 11	82
Day 12	84

03. 2024학년도	84
Day 13	86
Day 14	88
Day 15	90
Day 16	92
Day 17	96
실전문제	94
실전문제 해설에 대하여	95
01. 2021학년도	96
Day 18	98
Day 19	100
02. 2020학년도	102
Day 20	104
Day 21	106
Day 22	108
03. 2024학년도	108
Day 23	111
Day 24	112
문학편	114
문학이론	115
Day 1 수능 문학의 기초	116
수능 문학의 기초: 문제를 분석해보자	116
수능 문학과 문학 원리	123
문학개념어와 선지 분석	126
Day 2 문학 분석 기초	138
작품 분석의 기초	138
<보기>가 없을 때, 문학 분석	142
<보기>가 있을 때, 문학 분석	149
Day 3. 시의 분석 심화	152
시의 형식: 리듬감과 끊어읽기	152
시의 해석: 대립항	154
시의 내용적 해석과 내용적 문제 풀이	156
Day 4 소설 분석 심화	167
산문 분석: 인물 중심으로 분석하는 방법	167
소설 분석과 내용적 문제 풀이	168
인물 분석과 마인드 맵	178
결과물로서의 플롯과 시각화	184

시분석연습	192
시분석을 실제로 해봅시다.	193
Day 05	194
01. 2021학년도	194
Day 06	197
02. 2020학년도	197
Day 07	200
03. 2024학년도	200
소설분석연습	203
소설분석을 실제로 해봅시다.	204
Day 08	205
01. 2021학년도	205
Day 09	207
Day 10	209
Day 11	211
02. 2020학년도	211
Day 12	213
03. 2024학년도	213
Day 13	215
실전분석연습	217
실전문제 해설에 대하여	218
Day 14	219
01. 2021학년도	219
Day 15	223
Day 16	227
02. 2020학년도	227
Day 17	232
Day 18	236
03. 2024학년도	236
Day 19	241

독서편

R eading &
T hinking

읽기이론

수능 문제를 잘 풀려면 읽는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문학이나 독서 영역에서도 이론을 공부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읽기를 잘하면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Day 1 (수능독서의 본질)

수능 분석과 두 가지 생각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양이 줄었어요. 특히 국어, 수학, 과학 과목에서 공부량이 많이 줄었죠. 이 변화로 인해 수능 시험 문제는 학생들이 실수하기 쉬운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온라인 강의와 같은 새로운 학습 방법들이 발전하면서,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기준점수가 90점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이 높아진 기준점수는 쉽게 낮아지지 않고 있어요.

이제 3문제 정도 틀려도 1등급을 받을 수 있지만,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많은 양을 공부하기보다는 실수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해졌어요. 따라서 학생들은 실수하는 부분을 잘 분석해서, 어디서 자주 틀리는지 알아내야 해요. 이런 분석을 통해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공부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해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실수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안할 때		생각을 깊게 할 때	
○	×	○	×

학생들이 종종 시험에서 틀리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많이 생각하지 않고 틀리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많이 생각한 후에도 틀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실수들을 그냥 지나치거나 정답만 확인하고 넘어가요.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깊게 생각하다 틀린 문제들을 오답노트에 적어요. 그리고 생각 없이 틀린 문제들은 여러 문제집을 반복해서 풀며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실수를 하든 안 하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이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는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중요한 점은 우리가 '생각'에 대해 더 깊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특별한 노력 없이 하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생각이예요. 제가 이 책에서 다루는 생각의 이 두 가지 방식은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에서 잘 설명되어 있어요. 이 책에서는 이 두 가지 생각을 S1과 S2라고 부르고 있어요.

	S1	S2
속도	>	
특징①	Non stop	자제력
특징②	Easy	S1 수정
결론	생각 필요X	노력 필요

S1 (시스템 1) : 거의 혹은 전혀 힘들이지 않고 자발적인 통제에 대한 감각없이 자동적으로 빠르게 작동한다.

S2 (시스템 2) : 복잡한 계산을 포함해서 관심이 요구되는 노력이 필요한 정신 활동에 관심을 할당한다. 활동 주체, 선택, 집중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과 연관되어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때때로 작용한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으로도 공부가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이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테스트되거나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일들은 중요하지만, 그것들만으로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과학 실험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항상 올바른 결과를 준다고 확신할 수 없어요. 과학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실험하고 그 결과를 검증해야만,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연구 결과나 과학적인 증거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지식이 더 넓고 정확해질 수 있어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들에 이름을 붙여야 할까요? 네, 붙여야 해요. 이름이 없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는 있지만, 이름을 붙이면 우리가 그것을 더 잘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게 돼요. 이름이 있으면, 우리가 배운 것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이제, 수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수능은 대학 입학 시험을 위한 것이에요. '수능'은 '대학수학능력평가'라는 긴 이름의 줄임말이에요. 이 시험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수능 시험은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빠르게 풀어야 해요. 예를 들어, 국어는 한 문제당 1.7분(80/45), 수학은 3.3분(100/30), 영어는 1.5분(70/45), 사회나 과학 탐구 과목은 한 문제당 1.5분(30/20)씩 시간을 줘요.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이런 능력은 IQ 테스트에서 보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빨리 생각하고 답을 찾는 능력이 수능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간단히 말해서, 수능은 우리가 배운 것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수능을 준비할 때는, 빠르게 생각하는 능력인 S1을 길러야 해요.

S1은 긴장감이 적을 때 활성화되고,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보 인출 시 실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난다. 또한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외국에서는 창의적 사고를 Critical Thinking이라 한다)
하지만 신유형 문제를 보거나, 익숙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람을 긴장하게 된다. 보통 수학 21, 30번 문제를 보거나, 영어 빈칸 킬러 문형을 볼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S2가 활성화된다. S2는 기억보다는 사실에 더 의존한다. 하지만 불편한 심리상태는 정보 인출 시 실수를 유발하며,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못하게 막는다.

	편안함	불편함
생각	S1	S2
긴장감	<	
근본	기억	사실
접근	실전적 풀이	사후적 해석
Critical	>	
결론	균형 있는 활용	

그럼 S2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연스럽게 더 집중하고 생각하는 능력, 즉 'S2'를 사용합니다. 이 'S2'는 가끔 우리의 일상적인 사고방식인 'S1'을 바로잡아 주기도 해요. 'S2'는 우리가 집중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니 'S2'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S1'과 'S2'를 잘 조화시켜 사용해야 해요. 우리의 평소 사고방식인 'S1'을 잘 훈련시키고, 또 'S2'를 사용할 때 실수가 없도록 논리적인 도구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고방식을 잘 발달시키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깊은 생각과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자동화된 사고'인,
S1으로 문제를 푼다는 것**

: 실제 시험이나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지금까지 배우고 연습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해요.

체크리스트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적혀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는 이 체크리스트에 있는 요소들이 문제 속에 나타나 있는지, 그리고 선택지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올바른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

구겨진 하늘은 묵은 애기책을 편 듯
돌담 울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 오면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묵화(墨畵) 한 폭 종이 쳐.

떡엄 떡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앞밭에 보리밭에 말매나물 캐러 간
가시내는 가시내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술레잔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피었고.

그넷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앞내강에 씨레나무 밀려 나리면
젊은이는 젊은이와 뗏목을 타고
돈 벌러 항구로 흘러간 몇 달에
서릿발 앞 저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
곰처럼 어린 놈이 북극을 꿈꾸는데
늙은이는 늙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은
동리(洞里)의 밀고자인 강물조차 얼붙는다.

- 이육사, 「초가」 -

(나)

오늘, 북창을 열어,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壽)하는 데다가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
마음이 분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아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같은 산 정기(精氣)를 그리며 산다.

- 김관식, 「거산호 2」 -

22. 묵화와 북창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에서는 '묵화'와 '박쥐 나래'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나)에서는 '북창'에서 바라본 산의 '품'에 주목하여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② (가)에서 '묵화'는 '황혼'이 상징하는 현실적 상황에, (나)에서 '북창'은 '저승의 밤'이 의미하는 절망적 상황에 대응된다.

③ (가)에서 '묵화'에 '종이 쳐'라고 한 것은 화자가 고향에 대해 느끼는 세월의 깊이를, (나)에서 '북창'을 '열어' 열었다고 한 것은 산을 대하는 화자의 인식이 변화된 시점을 드러낸다.

④ (가)에서 '묵화'를 '그림 조각'이라고 한 것은 고향의 분절된 이미지를, (나)에서 '북창'을 '열어' 산을 보고 있다는 것은 선망하는 세계와 분리된 이미지를 나타낸다.

⑤ (가)에서는 '묵화'에 그려진 '모매꽃'에 부끄러움의 정서를, (나)에서는 '북창'을 통해 본 '보옥'에 안타까움의 정서를 담아낸다.

사고과정 추적하기

22. **목화와 복창**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목화와 복창이 있는 주변부를 본다.
- ✓ 비교라는 말에 집중한다.

① (가)에서는 ‘목화’와 ‘박쥐 나라’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나)에서는 ‘복창’에서 바라본 산의 ‘꿈’에 주목하여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 ‘박쥐 나라’ 주변부를 본다.
- ✓ 향훈이 묻혀 오면에서 시간적으로 저녁임을 알 수 있다.
(추가적 단서)
- 호롱불: 어두워지는 것을 의미함
- ✓ 해당 선지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 ✓ 꿈에 주변부를 본다.
- ✓ (산의) 그 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려니라는 표현에서, 아이가 부모님의 꿈에서 성장함을 연결 지을 수 있다.
- ✓ 해당 선지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② (가)에서 ‘목화’는 ‘황혼’이 상징하는 현실적 상황에, (나)에서 ‘복창’은 ‘저승의 밤’이 의미하는 절망적 상황에 대응된다.

- ✓ 황혼 주변부를 본다.
- ✓ 황혼이 묻혀 오면에서 시간적으로 저녁임을 알 수 있다.
- ✓ 어두워지는 현실적 상황을 알 수 있다.
- ✓ 해당 선지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 ✓ 저승의 밤 주변부를 본다.
- ✓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아라하 별쳐 있어 다리 놓는 산:
=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이 산을 통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연결되어 있음은 절망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거짓이다

③ (가)에서 ‘목화’에 ‘좀이 쳐’라고 한 것은 화자가 고향에 대해 느끼는 세월의 깊이를, (나)에서 ‘복창’을 ‘오늘’ 열었다고 한 것은 산을 대하는 화자의 인식이 변화된 시점을 드러낸다.

- ✓ ‘오늘’ 주변부를 본다.
- ✓ 오늘, **복창**을 열며,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았다는 것을 통해, 산을 지향하는 태도에 대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 ✓ 인간에 대해 부정적인 것이지, 산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즉, 산이라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변화가 없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거짓이다.

④ (가)에서 ‘목화’를 ‘그림 조각’이라고 한 것은 고향의 분절된 이미지를, (나)에서 ‘복창’을 ‘열어’ 산을 보고 있다는 것은 선망하는 세계와 분리된 이미지를 나타낸다.

- ✓ 그림 조각 주변부를 본다.
- ✓ 시의 화자인 나는 회상 중이다.
- ✓ 고향이 분절된 것이 아니라, 나의 고향에 대한 회상이 분절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거짓이다.
- ✓ 열어 주변부를 본다.
- ✓ 시의 화자인 나는 복창을 열어서 산을 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창을 열어서 산과 연결되는 것이다.
- ✓ 연결되는 것과 분리된 것은 다르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거짓이다.

⑤ (가)에서는 ‘목화’에 그려진 ‘모매꽃’에 부끄러움의 정서를, (나)에서는 ‘복창’을 통해 본 ‘보옥’에 안타까움의 정서를 담아낸다.

- ✓ ‘모매꽃’ 주변부를 본다.
- ✓ 뉘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슬레잔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피었고에서 부끄러움 때문에 두 뺨위에 모매 꽃이 피었다는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 ✓ 해당 선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 ✓ 보옥 주변부를 본다.
- ✓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에서
보옥이 있더라도 자랑하지 않는 겸허함을 산에 부여한 것을 알 수 있다.
- ✓ 특정 대상에 대한 판단으로, 겸허함과 안타까움은 다르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거짓이다.

지금까지 정리된 체크표시의 내용들은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빠르고 정확하게 수능 국어 문제를 풀 수 있다.

2. '분석적 사고'인, S2으로 체크리스트를 정리한다는 것

실전에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할 때는, 미리 연습한 것들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때 우리는 문제에서 어떤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요소들이 선택지와 어떻게 맞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과정을 돕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느린 사고(Slow Thinking)'를 위한 공부 방법을 사용하면, 실전에서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더 잘 준비할 수 있어요. 느린 사고를 위한 공부에는 세 가지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

- ✓ **생각의 과정 천천히 적기:** 빠르게 생각하는(Fast Thinking) 과정에서 만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보세요. 자신이 만든 체크리스트를 읽으면서, 이상하거나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 천천히 생각해보고 다시 정리해보세요.
- ✓ **적용된 논리 관계 찾기:** 필기에서 생각의 과정을 정리하고, 그 안의 논리 관계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선후관계, 인과관계, 포함관계, 수단과 목적 등을 찾아보고 이를 정리해보세요.
- ✓ **배경지식 확인하기:**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구분한 다음, 모르는 단어나 개념에 대해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하면, 실전에서 사용할 머릿속의 체크리스트를 잘 정리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류를 줄이고 체크리스트를 완성하면, 수능 국어 공부에 더욱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사고과정 추적하기

1단계: 주제 및 요구사항 파악

- ✓ **문제 이해:** 문제의 주제와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시의 구절을 비교 분석하는 문제에서는 각 구절의 주제, 분위기, 상징적 의미 등을 파악합니다.
- ✓ **중요 요소 식별:** 문제에서 요구하는 비교 대상이나 핵심 개념을 식별합니다. 예를 들어, '목화'와 '복창'의 비교에서는 두 대상이 갖는 상징적 의미와 그들의 상호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할만한 행동들:

문제를 천천히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나 구절에 밑줄을 칩니다.

문제의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메모를 작성합니다.

독백:

"자, 이 문제에서는 뭐가 중요한 걸까? 목화와 복창, 이 둘의 비교가 핵심이네. 주변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지."

2단계: 배경 지식 활용 및 분석

- ✓ **배경 지식 동원:** 관련된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에 접근합니다. 이는 문학적 배경, 작가의 생애, 문학적 맥락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 **세부 요소 분석:** 문제의 세부 요소들을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시의 언어 사용, 문체, 이미지, 리듬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어떻게 이들이 전체적인 의미에 기여하는지 파악합니다.

할만한 행동들:

관련된 배경 지식을 책이나 인터넷에서 찾아보며 메모합니다.

각 구절의 언어적 특징이나 이미지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독백:

"이 시의 작가는 뭐라고 생각했을까? 이 배경은 어떤 맥락에서 온 거야? 아, 여기 이 단어의 사용이 흥미롭네. 이것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3단계: 비교 기준 설정

- ✓ 비교 기준 정립: 두 대상이나 개념을 비교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는 각 대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 논리적 구조 수립: 비교 분석을 위한 논리적 구조를 수립합니다. 이는 각 요소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체적인 논지를 구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할만한 행동들:

비교할 때 중요한 기준을 메모합니다.

두 대상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목록화합니다.

독백:

"뭘봐와 북창.. 이 둘을 비교하려면 뭐가 중요할까? 각각 어떤 감정이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지 비교해봐야겠어. 유사점은 뭐가 있고, 차이점은 어떤 게 있지?"

4단계: 체크리스트 작성

- ✓ 세부 항목 정리: 이전 단계에서 설정한 비교 기준과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항목을 작성합니다. 각 항목은 문제를 풀 때 검토해야 할 중요한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 ✓ 유연성 유지: 체크리스트는 유연해야 합니다. 문제에 따라 추가적인 사항을 고려하거나 기존 항목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만한 행동들:

각 단계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각 항목이 명확하고 구체적인지 확인합니다.

독백:

"이제 이 모든 정보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보자. 각 항목이 문제 풀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이걸로 문제를 풀 때 놓치는 게 없도록 해야겠어."

5단계: 검토 및 수정

- ✓ 자체 검토: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자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는 논리적 일관성, 완전성, 실제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 수정 및 개선: 필요한 경우, 체크리스트를 수정하고 개선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체크리스트의 효율성을 시험해볼 수 있습니다.

할만한 행동들:

만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실제 문제를 풀어보며 검토합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 수정하고 개선합니다.

독백:

"자, 이 체크리스트로 실제 문제를 풀어보자. 잘 작동하는지, 어디가 부족한지 확인해야겠어. 아, 여기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바꿔야겠네. 이렇게 하면 다음 번에 더 잘 풀 수 있겠어!"

R eading &
T hinking

변형문제

수능 문제를 바로 풀기보다는, 먼저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수능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다른 형태의 문제를 준비해봤어요.

문제풀고 해야할 일

문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풀고 나서 제대로 정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만약 여러분이 이미 읽기 방법을 잘 정립하고 있다면, 지문 분석 부분을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읽기 방법을 더 개선하고 싶다면, 문제를 풀고나서 반드시 지문 분석 부분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지문 활용 부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래에서 설명해드릴게요.

Day 5

18세기 북학파들은 청에 다녀온 경험을 연행록으로 기록하여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는 북학론을 구체화하였다. 이들은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들의 북학론도 차이를 보였다. 이들에게는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중화 관념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각각 다르게 반영된 것이다. 1778년 함께 연행길에 올라 동일한 일정을 소화했던 박제가와 이덕무의 연행록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확인된다. 북학이라는 목적의식이 강했던 박제가가 인식한 청의 현실은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이었다. 그가 쓴 『북학의』에 묘사된 청의 현실은 특정 관점에 따라 선택 및 추상화된 것이었으며, 그런 청의 현실은 그에게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이기도 하였다. 중화 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당시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북학론의 밑바탕이 되었다.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당시 주류의 견해에 대해 그는 의리 문제는 청이 천하를 차지한 지 백여 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소멸된 것으로 여기고, 청 문물제도의 수용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논하며 북학론의 당위성을 설파하였다. 대체로 이익 추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주자학자들과 달리,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하고 양반도 이익을 추구하자는 등 실용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문 세부 분석

1번째 부분:
"18세기 북학파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는 북학론을 구체화하였다. 이들은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들의 북학론도 차이를 보였다. 이들에게는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중화 관념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각각 다르게 반영된 것이다. 1778년 함께 연행길에 올라 동일한 일정을 소화했던 박제가와 이덕무의 연행록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확인된다. 북학이라는 목적의식이 강했던 박제가가 인식한 청의 현실은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이었다. 그가 쓴 『북학의』에 묘사된 청의 현실은 특정 관점에 따라 선택 및 추상화된 것이었으며, 그런 청의 현실은 그에게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이기도 하였다. 중화 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당시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북학론의 밑바탕이 되었다.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당시 주류의 견해에 대해 그는 의리 문제는 청이 천하를 차지한 지 백여 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소멸된 것으로 여기고, 청 문물제도의 수용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논하며 북학론의 당위성을 설파하였다. 대체로 이익 추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주자학자들과 달리,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하고 양반도 이익을 추구하자는 등 실용적인 입장을 보였다."

2번째 부분:
"이들은 개인적 달랐기 때문에 #개인적학문성향 [북학파 내에서 접근하는 방식]"

3번째 부분:
"이들에게는 동 청의 현실에 대 #중화관념 #청 [북학파는 중화 청나라에 대한]"

4번째 부분:
"박제가와 이덕 #박제가 #이덕 [박제가와 이덕 그들의 연행록]"

이론을 바탕으로 문단에 있는 문장들을 하나씩 정리 했습니다. 분석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번째 부분:
"18세기 북학파들은 청에 다녀온 경험을 연행록으로 기록하여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는 북학론을 구체화하였다."
#북학파 #연행록 #북학론 #청 #문물제도
[북학파는 청나라의 문물제도를 조선에 도입하자는 북학론을 주장했으며, 이는 그들의 청나라 방문 경험과 관찰을 기록한 연행록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문장 별 키워드 : 문장을 읽으면서, 'Day2'에서 배운 것처럼 '쉬운 부분에 집중하기'라는 활동을 하면, 중요한 단어들을 중심으로 글을 읽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AI를 이용해서 중요한 단어들을 찾아내고, 이 단어들을 분석하는 데에도 포함시켰습니다.

[문장 분석]: '3~4일차에 배운 것처럼, 우리는 문단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배웠어요. 그리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글을 분석해봤습니다. 이렇게 배우고 연습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생각하는 능력을 더 좋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해요.'

키워드 분석

문서를 읽다 보면 중요한 단어들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문단 전체에서 특정 단어를 선택하는 것, 그 내용은 Day1에서 선택의 문제로서의 독서의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키워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속도를 조절하시는 연습을 해야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이 성장하면서 읽는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한 눈에 보는 문단

지난 Day 1에서 말했던, '마인드맵'을 활용하는 법을 기억한다면, 속발음을 조절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마인드맵을 추가했습니다. 결국 지문 분석 파트 역시 교재에서 배운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려 합니다.

01. 2021학년도

[1~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8세기 북학파들은 청에 다녀온 경험을 연행록으로 기록하여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는 북학론을 구체화하였다. 이들은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들의 북학론도 차이를 보였다. 이들에게는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중화 관념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각각 다르게 반영된 것이다. 1778년 함께 연행길에 올라 동일한 일정을 소화했던 박제가와 이덕무의 연행록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확인된다. 북학이라는 목적의식이 강했던 박제가가 인식한 청의 현실은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이었다. 그가 쓴 『북학의』에 묘사된 청의 현실은 특정 관점에 따라 선택 및 추상화된 것이었으며, 그런 청의 현실은 그에게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이기도 하였다. 중화 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당시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북학론의 밑바탕이 되었다.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당시 주류의 견해에 대해 그는 의리 문제는 청이 천하를 차지한 지 백여 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소멸된 것으로 여기고, 청 문물제도의 수용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논하며 북학론의 당위성을 설파하였다. 대체로 이익 추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주자학자들과 달리,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하고 양반도 이익을 추구하자는 등 실용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덕무는 「입연기」를 저술하면서 청의 현실을 객관적 태도로 기록하고자 하였다. 잘 정비된 마을의 모습을 기술하며 그는 황제의 행차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가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청 문물의 효용을 도외시하지 않고 박제가와 마찬가지로 물질적 삶을 중시하는 이용후생에 관심을 보였다. 스스로 평등견이라 불렀던 인식 태도를 바탕으로 그는 당시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였다. 이런 시각에서 그는 청과 조선은 구분되지만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즉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화된 것을 보고 비통한 감정을 토로하며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등 자신이 제시한 인식 태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0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덕무는 청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려고 노력하였다.
- ② 이덕무는 『북학의』를 통해 조선의 현실을 묘사했다.
- ③ 박제가의 주자학자들의 이익 추구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대조되는 입장을 보였다.
- ④ 박제가는 청의 문물제도 수용을 주장하였다.
- ⑤ 이덕무는 황제 행차 준비와 민생의 무관함을 지적하였다.

02.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덕무는 당시 청에 대한 찬반 양론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였다.
- ② 박제가는 조선이 중화 관념에 따라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③ 박제가 연행 이후에, 이덕무는 1778년에 연행길을 다녀왔다.
- ④ 이덕무는 조선이 청을 배우면서도 자신의 풍토에 맞게 살아가도록 긍정하였다.
- ⑤ 박제가는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보았다.

03.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박제가와 이덕무 모두 물질적 삶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 ② 박제가는 청 문물제도 수용의 이익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논하였다.
- ③ 18세기 북학파는 청의 문물제도 수용을 주장하였다.
- ④ 이덕무는 청과 조선의 가치 모두를 인정하였다.
- ⑤ 박제가는 청이 천하를 차지한 지 백여 년 후의 이상을 인정하였다.

04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박제가는 중화와 합치되는 발전 방향을 지향하였다.
- ② 박제가는 청의 문물제도를 조선의 발전 방향으로 보았다.
- ③ 이덕무는 평등견을 바탕으로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를 인식했다.
- ④ 이덕무는 청의 현실과 조선의 현실 사이의 객관적 차이를 기술했다.
- ⑤ 이덕무는 청과 조선이 공존할 수 없다고 보았다.

선택된 주제 단어

[주제1] 북학파 / [주제2] 중화 관념 / [주제3] 청의 문물제도

05. [주제1]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제1]는 18세기 조선에서 활동한 학자였다.
- ② [주제1]의 북학론은 당대 조선의 문물제도 개선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를 포함했다.
- ③ [주제1]의 연행록은 후대 연구자들에게 조선 시대 학자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 ④ [주제1]는 청나라의 현실을 조선의 발전 방향과 연계하여 바라보았다.
- ⑤ [주제1]의 활동은 당시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

06. [주제1]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제1]는 청의 퇴보한 문물제도를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 ② [주제1]의 구성원들은 개인의 학문적 경향에 따라 각기 다른 북학론을 제시했다.
- ③ [주제1]는 조선 내에서 청나라 문물을 학습하고 도입하는 것을 지향했다.
- ④ [주제1]는 실제 청나라 방문을 기반으로 한 자료를 통해 조선 내의 개혁을 논의하는 데 일조했다.
- ⑤ [주제1]의 북학론은 조선이 청나라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여 자체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07. [주제2]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제2]는 조선인들이 청의 문물제도를 보는 관점에 영향을 미쳤다.
- ② 박제가는 [주제2]의 절대성을 바탕으로 조선의 발전 방향을 주장했다.
- ③ [주제2]는 조선과 청의 문화적, 제도적 차이에 대한 공통점에 영향을 미쳤다.
- ④ [주제2]는 북학파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접근 방식으로 해석되었다.
- ⑤ [주제2]에 따르면, 비중화권 문화는 중화 문화에 반드시 종속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08. [주제2]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제2]는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척도로 여겨졌다.
- ② 18세기 북학파의 학자들은 [주제2]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였다.
- ③ [주제2]는 조선 시대에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의미했다.
- ④ [주제2]를 배척함으로써 조선은 더 넓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한다는 인식을 강화하였다.
- ⑤ [주제2]는 조선 사회 내에서 청의 문물제도에 대한 재평가를 유도했다.

09. [주제3]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제3]의 수용은 북학파가 제시한 조선의 발전 방향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 ② [주제3]는 북학파에 의해 조선의 발전을 위한 모델로 고려되었다.
- ③ 북학파의 연행록은 [주제3]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인상을 기록했다.
- ④ 이덕무는 [주제3]에 대해 객관적 태도로 접근하여 묘사했다.
- ⑤ [주제3]의 성공적인 도입은 청의 국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었다.

10. [주제3]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제3]는 18세기 북학파가 중요하게 여긴 조선의 사회적 및 문화적 체계였다.
- ② 박제가의 북학론에 의하면, [주제3]는 조선의 발전을 위해 참조되어야 했다.
- ③ [주제3]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북학파 내에서 중요한 학문적 논쟁거리였다.
- ④ [주제3]는 동아시아 문화권 내에서 조선이 겪고 있던 문화적, 정치적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 ⑤ 북학파는 [주제3]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조선의 현실을 평가하려고 노력했다.

R eading &
T hinking

실전문제

수능에서 나온 문제들을 모아 놓았어요. 지난 7월에 나온 뉴스에 기반해서 지난 3년 동안의 중요한 수능 문제들을 모았습니다. 이 문제들을 풀어보시고, 꼭 해설지와 지문을 분석한 자료를 함께 이용하면 좋아요. 이 자료들을 사용하면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수능 공부에 도움이 될 거예요.

Day 17

01. 2021학년도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8세기 북학파들은 청에 다녀온 경험을 연행록으로 기록하여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는 북학론을 구제화하였다. 이들은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들의 북학론도 차이를 보였다. 이들에게는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중화 관념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각각 다르게 반영된 것이다. 1778년 함께 연행길에 올라 동일한 일정을 소화했던 박제가와 이덕무의 연행록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확인된다.

북학이라는 목적의식이 강했던 박제가가 인식한 청의 현실은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이었다. 그가 쓴 『북학의』에 묘사된 청의 현실은 특정 관점에 따라 선택 및 추상화된 것이었으며, 그런 청의 현실은 그에게 중화가 손상 없이 ④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이기도 하였다. 중화 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당시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북학론의 밑바탕이 되었다. 명에 대한 의리를 증시하는 당시 주류의 견해에 대해 그는 의리 문제는 청이 천하를 차지한 지 백여 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소멸된 것으로 여기고, 청 문물제도의 수용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논하며 북학론의 당위성을 설파하였다. 대체로 이익 추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주자학자들과 달리,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하고 양반도 이익을 추구하자는 등 실용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덕무는 「입연기」를 저술하면서 청의 현실을 객관적 태도로 기록하고자 하였다. 잘 정비된 마을의 모습을 기술하며 그는 황제의 행차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가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청 문물의 효용을 ⑥도외시하지 않고 박제가와 마찬가지로 물질적 삶을 중시하는 이용후생에 관심을 보였다. 스스로 평등견이라 불렀던 인식 태도를 바탕으로 그는 당시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였다. 이런 시각에서 그는 청과 조선은 구분되지만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즉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화된 것을 보고 비통한 감정을

토로하며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증시하는 등 자신이 제시한 인식 태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나)

18세기 후반의 중국은 명대 이래의 경제 발전이 정점에 달해 있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향촌의 정기 시장부터 인구 100만의 대도시의 시장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시장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국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장거리 교역의 상품이 사치품에 ③한정되지 않고 일상적 물건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상인 조직의 발전과 신용 기관의 확대는 교역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대외 무역의 발전과 은의 유입은 중국의 경제적 변형에 영향을 미친 외부적 요인이었다. 은의 유입, 그리고 이를 통해 가능해진 은을 매개로 한 과세는 상품 경제의 발전을 ②자극하였다. 은과 상품의 세계적 순환으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그러나 청의 변형은 지속되지 않았고, 19세기에 접어들 무렵부터는 심각한 내외의 위기에 직면해 급속한 하락의 시대를 겪게 된다. 북학파들이 연행을 했던 18세기 후반에도 이미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는 새로운 작물 재배, 개간, 이주, 농경 집약화 등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다. 인구 증가로 이주 및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거나 단절된 사람들이 상호 부조 관계를 맺는 결사 조직이 ①성행하였다. 이런 결사 조직은 불법적인 활동으로 연결되곤 했고 위기 상황에서는 반란의 조직적 기반이 되었다. 인맥에 기초한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된 것 역시 인구 증가와 무관하지 않았다. 교육받은 지식인들이 늘어났지만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관료 조직의 규모는 정체되어 있었고, 경쟁의 심화가 종종 불법적인 행위로 연결되었다. 이와 같이 18세기 후반 청의 화려한 변형의 그늘에는 ①심각한 위기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었다.

통치자들도 변형 속에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조정에는 외국과의 접촉으로부터 백성들을 차단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 확대에 의해 이런 경향이 강화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18세기 후반에 청 조정은 서양에 대한 무역 개방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위기가 본격화되지는 않았고, 소수의 지식인들만이 사회 변화의 부정적 측면을 염려하거나 개혁 방안을 모색하였다.

16.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18세기 중국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견해의 형성 배경 및 견해 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 ② (가)는 18세기 중국을 바라보는 사상적 관점을 제시하면서 각 관점이 지닌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서로 비교하고 있다.
- ③ (나)는 18세기 중국의 사회상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사회상을 시대별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④ (나)는 18세기 중국의 사상적 변화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변화가 지니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분석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18세기 중국의 현실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실이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17. (가)의 ‘박제가’와 ‘이덕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박제가는 청의 문물을 도입하는 것이 중화를 이루는 방도라고 간주하였다.
- ② 박제가는 자신이 파악한 청의 현실을 조선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였다.
- ③ 이덕무는 청의 현실을 관찰하면서 이면에 있는 민생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
- ④ 이덕무는 청 문물의 효용성을 긍정하면서 청이 중화를 보존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 ⑤ 박제가와 이덕무는 모두 중화 관념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18. 평등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선의 풍토를 기준으로 삼아 청의 제도를 개선하자는 인식태도이다.
- ② 조선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청의 방식에 따라 개혁해야 한다는 인식 태도이다.
- ③ 청과 조선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고 풍토로 인한 차이를 해소하려는 인식 태도이다.
- ④ 중국인의 외양이 변화된 모습을 명에 대한 의리 문제와 관련지어 파악하려는 인식 태도이다.
- ⑤ 청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지양하고 청과 구분되는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하자는 인식 태도이다.

19. 문맥을 고려할 때 ㉠의 의미를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새로운 작물의 보급 증가가 경제적 변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 ② 신용 기관이 확대되고 교역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 ③ 반란의 위험성 증가 등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 ④ 이주나 농경 집약화 등 조정에서 추진한 정책들이 실패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 ⑤ 사회적 유대의 약화로 인하여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20. <보기>는 (가)에 제시된 『북학의』의 일부이다. [A]와 (나)를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비판적 읽기를 수행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많이 나는 산물을 다른 데서 산출되는 필요한 물건과 교환하여 풍족하게 살려는 백성이 많으나 힘이 미치지 못한다.…중국 사람은 가난하면 장사를 한다. 그렇더라도 정말 사람만 현명하면 원래 가진 풍류와 명망은 그대로다. 그래서 유생이 거리낌 없이 서점을 출입하고, 재상조차도 직접 용복사 앞 시장에 가서 골동품을 산다.…우리나라는 해마다 은 수만 냥을 연경에 실어 보내 약재와 비단을 사 오는 반면, 우리나라 물건을 팔아 저들의 은으로 바꿔 오는 일은 없다. 은이란 천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물건이지만, 약은 사람에게 먹여 만나절이면 사라져 버리고 비단은 시신을 감싸서 묻으면 반년 만에 썩어 없어진다.

- ①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업에 대한 인식은 [A]에서 제시한 실용적인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
- ② <보기>에 제시된 조선의 산물 유통에 대한 서술은 [A]에서 제시한 북학론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라 볼 수 있어.
- ③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행위에 대한 서술은 (나)에 제시된 중국 국내 교역의 양상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
- ④ <보기>에 제시된 은에 대한 평가는 (나)에 제시된 중국의 경제적 변영에 기여한 요소를 참고할 때, 은의 효용적 측면을 간과한 평가라 볼 수 있어.
- ⑤ <보기>에 제시된 중국의 관료에 대한 묘사는 (나)에 제시된 관료 사회의 모습을 참고할 때, 지배층의 전체 면모가 드러나지 않는 진술이라 볼 수 있어.

문학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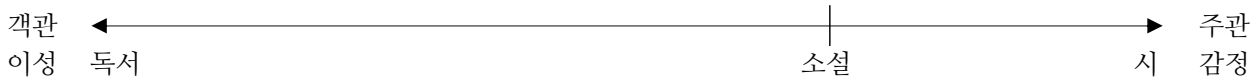
R eading &
T hinking

문학이론

문학이론을 공부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어요. 먼저, 문학작품을 더 깊이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도와줘요. 이론은 작품의 주제, 구조, 의미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해요. 또한, 문학이론은 문학 작품이 사회, 역사, 문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에도 중요해요.

Day 1

수능 문학의 기초: 문제를 분석해보자



문학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사람들의 생활을 이야기로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문학은 이야기를 만들 때 일정한 논리를 따르기도 하지만,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에는 종종 제한이 있습니다.

시를 예로 들면, 시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집중한 문학 형식이에요. 때문에 시에서는 감정을 많이 표현하고, 때로는 논리적인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문제나 시험에 나오는 '보기'들은 이런 시의 특성을 고려해야 해요. 만약 문제나 '보기'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라면, 그 내용을 단순히 '옳다-그르다'로만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또한, 주어진 '보기'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지만 문제 자체는 논리적으로 구성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시험에서 5개의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만들 때, 대부분의 논리적인 구성은 문학 작품 자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해요.

이 '다른 곳'은 '보기'일 수도 있고, 문제 자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읽고 논리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때때로는 문제를 먼저 읽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많답니다.

2024 문제

19. ㉠과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황상은 ㉠의 심각성을 이전의 ‘전장’과 비교하고, 그때의 경험에 근거하여 ㉠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아낸다.
- ② 이우영은 ㉠의 해결을 위해 ‘조정’에서 황상의 질문에 답하며 ㉠에 대처할 방안을 찾아 줄 지모 있는 인물을 거명한다.
- ③ 황상은 ㉠의 여파가 미치지 않은 ‘고향’에서 편안히 지내던 승상에게 ㉠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알린다.
- ④ 승상은 ㉠의 원흉인 아귀를 원이 ‘철마산’에서 본 것을 황상에게 아뢰고, ㉠을 해결할 단서를 제공할 인물을 천거한다.
- ⑤ 원은 ㉠의 해결 방안을 떠올리고, ‘협실’에서 공주를 만나 ㉠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을 알게 된다.

20.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에서는 상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숨겨 온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와 ㉣에서는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어, 상대의 복종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③ ㉡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드러내고, ㉣에서는 자신들의 의도를 상대에게 숨기고 있다.
- ④ ㉢에서는 당위를 내세워 상대의 행위를 요구하고, ㉣에서는 상대의 안위를 우려하여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 ⑤ ㉣에서는 상대에게 자신의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에서는 상대의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문제 분석

문제 19번은 이야기나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는 걸 요구해요. 여기서 '㉠'은 문제에서 주어진 특별한 상황이나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각 선택지에서는 이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해요. 그리고 각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거나 행동하는지를 문제 속에서 잘 이해해야 해요. '㉠'이라는 말은 이야기 안에서 중요한 상황을 나타내지만, 무엇을 가리키는지 바로 알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 이야기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해요.

문제를 풀려면, '㉠'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고, 각 선택지에서 언급된 사람들의 행동이나 반응이 이 '㉠'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봐야 해요. 이렇게 하려면 이야기의 특정 부분을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해요.

문제 20번은 네 가지 다른 상황이나 대화에 대해 물어보고 있어요. 각 선택지는 이 상황들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죠. 이 문제를 풀려면, 먼저 '㉡', '㉢', '㉣', '㉤'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해요. 이것들은 책이나 이야기에서 특정 부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부분에서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는 거예요.

각 선택지는 이 상황들에서 인물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느끼는지 다르게 설명해요. 예를 들어, 한 선택지는 '㉡'와 '㉢'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진실을 말하는 걸 보여줄 수 있고, 다른 선택지는 '㉡'에서 감정을 드러내고 '㉣'에서는 무언가를 숨기는 걸 언급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책이나 이야기의 그 부분을 잘 읽어보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장 잘 맞는 해석을 고르면 돼요. 이건 책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필요로 해요.

Day 2 문학 분석 기초

작품 분석의 기초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루뱅 보쟁의 정물화 속 미학적 특징과 의미’

17세기 네덜란드의 경제가 급성장하고 부가 축적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시민계급은 이전의 귀족과 성직자들이 즐기던 역사화나 종교화와는 달리 자신들에게 친근한 주제와 형식의 그림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취향에 따라 출현한 정물화는 새로운 그림 후원자들의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반영했다. 화가들은 다양한 사물을 통해 물질적 풍요와 욕망을 그려 냈다. 동시에 그들은 그려진 사물을 통해 부와 화려함을 경계하는 기독교적 윤리관을 암시했다

루뱅 보쟁의 <체스 판이 있는 정물-오감>에는 테이블 위로 몇 가지 물건들이 보인다. 흑백의 체스 판 위에는 카네이션이 꽂혀 있는 꽃병이 놓여 있다. 꽃병에 담긴 물과 꽃병의 유리 표면에는 이 그림의 광원인 창문과 거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빛의 효과가 미묘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 빛은 테이블 왼편 끝에 놓인 유리잔에도 반사될 뿐만 아니라, 술잔과 꽃병 사이에 놓인 흰 빵, 테이블 전면에 놓인 만돌린과 펼쳐진 악보, 지갑과 트럼프 카드에도 골고루 비치고 있다. 이처럼 보쟁은 섬세한 빛의 처리를 통해 물건들에 손으로 만지는 듯한 질감과 함께 시각적 아름다움을 부여했다.



이 그림의 부제가 암시하듯, 그림 속의 사물들은 각각 인간의 욕망을 상징한다. 당시 많은 화가들이 따랐던 도상적 관례에 의거하면, 붉은 포도주와 빵은 미각과 성찬을 상징한다. 카네이션은 그리스도의 수난과 후각을, 만돌린과 악보는 청각을 나타낸다. 지갑은 탐욕을, 트럼프 카드와 체스 판은 악덕을 상징하는데, 이들은 모두 촉각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림 오른편 벽에 걸려 있는 팔각형의 거울은 시각과 함께 교만을 상징한다.

이와 같은 사물들의 다의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당시 오감을 주제로 그린 다른 화가들의 작품들로부터 이 그림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당시 대부분의 오감 정물화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강조하며, 현실의 욕망에 집착하지 말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 힘쓰라고 격려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중세적 도상 전통에서 ‘일곱 가지 커다란 죄’ 중의 교만을 상징하는 거울에 주목하게 된다. 이때 거울은 자기 자신의 인식, 깨어 있는 의식에 대한 필요성으로 이해된다. 그런 점에서 이 그림은 감각적인 온갖 악덕에 빠질 수 있는 자신을 가다듬고 경계하라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 보쟁의 정물화 속에 그려진 하나하나의 감각을 음미하다 보면 매우 은은하고 차분한 느낌과 함께 일종의 명상에 젖게 된다.

이전의 귀족과	① 17세기 네덜란드의 경제가 급성장하고 부가 축적됨
성직자들이 즐가던	② 새롭게 등장한 시민계급은 자신들에게 친근한 주제와 형식의 그림을 선호하게 됨
역사화나 종교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취향에 따라 출현한 정물화는 새로운 그림 후원자들의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반영했다
	- 화가들은 다양한 사물을 통해 물질적 풍요와 욕망을 그려 냈다.
	- 부와 화려함을 경계하는 기독교적 윤리관을 암시했다

있는 그대로 분석하기	루벤 보쟁의 <체스 판이 있는 정물-오감>에는 테이블 위로 몇 가지 물건들이 보인다.
	- 흑백의 체스 판 위에는 카네이션이 꽂혀 있는 꽃병이 놓여 있다.
	- 꽃병에 담긴 물과 꽃병의 유리 표면에는 이 그림의 광원인 창문과 거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빛의 효과가 미묘하게 표현되어 있다.
	- 그 빛은 테이블 왼편 끝에 놓인 유리잔에도 반사됨
	- 술잔과 꽃병 사이에 놓인 흰 빵, 테이블 전면에 놓인 만들린과 펼쳐진 악보, 지갑과 트럼프 카드에도 끌고루 비치

상식을 따라가는 해석	당시 많은 화가들이 따랐던 도상적 관례에 의거함
	- 붉은 포도주와 빵은 미각과 성찬을 상징한다.
	- 카네이션은 그리스도의 수난과 후각을, 만들린과 악보는 창가를 나타낸다.
	- 지갑은 탐욕을, 트럼프 카드와 체스 판은 악덕을 상징하는데, 이들은 모두 축가를 상징하기도 한다.
	- 그림 오른쪽 벽에 걸려 있는 팔각형의 거울은 시각과 함께 교만을 상징한다.

주어진 논리 따라가기	당시 대부분의 오감 정물화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강조하며, 현실의 욕망에 집착하지 말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 힘쓰라고 격려했음
	- 중세적 도상 전통에서 일곱 가지 커다란 죄 중의 교만을 상징하는 거울에 주목하게 됨
	- 거울은 자기 자신의 인식, 깨어 있는 의식에 대한 필요성으로 이해됨
	- 이 그림은 감각적인 온갖 악덕에 빠질 수 있는 자신을 가다듬고 경계하라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음
	▶ 기독교적 윤리관

R eading &
T hinking

시분석연습

시 분석을 직접 해보는 것은 이러한 이론적 지식을 실제로 적용하는 연습이 되며, 이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분석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수능 문제에서는 종종 작품의 주제나 메시지를 묻는 문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거나 시의 형식적 특징을 분석하는 문제 등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제 작품 분석 연습은 시험 대비에 매우 중요합니다.

Day 05

01. 2021학년도

〈보 기〉

(가)에는 천상의 시간과 지상의 시간이 모두 나타난다. 천상에서는 지상과 달리 생로병사의 과정 없이 끝없는 사랑이 지속된다. 이러한 시간적 질서는 지상에 내려온 화자를 힘겹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화자는 지상의 물리적 시간을 심리적으로 변형하여 자신의 심경을 드러낸다.

〈보 기〉

고요함은 소리나 움직임이 없이 잠잠한 상태인 외적 고요와 마음이 평온한 상태인 내적 고요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에 주목하여 (나)를 감상할 때, 화자가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심리는 고요함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다)에서 필자는 고요함에 대한 통찰을 통해 자신이 처한 공간에서 내적 고요를 추구하려 하는데, 이를 통해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 내는 동력을 얻고 있다.

(가)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훈싱 연분(緣分)이며 하늘 모를 일러가
나 하나 점어 잇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터 노여 업다
평생(平生)에 원(願)호요터 훈터 네자 호얏더니
늘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그리는고
엇그제 님을 뵈셔 광한던(廣寒殿)의 올났더니
그 터터 엇디호야 하계(下界)에 느려오니
올 저기 비슨 머리 헛틀언 디 삼 년일쇠
연지분(臙脂粉) 잇니마는 늘 위호야 고이 홀고
마음의 미친 실음 텃텃(疊疊)이 빠져 이셔
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
인성(人生)은 유한(有限)훈터 시름도 그지업다
무심(無心)훈 세월(歲月)은 물 흐르듯 호는고야
염냉(炎涼)이 썰를 아라 가는 듯 고터 오니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동풍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헤터 내니

창(窓) 맞기 심근 미화(梅花) 두세 가지 띄여세라
굿득 냉담(冷淡)훈터 암향(暗香)은 므스 일고
황혼의 들이 조차 벼마티 빗최니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터 미화 것거 내여 님 겨신 터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터타 너기실고

- 정철, 「사미인곡」-

(나)

창 맞기 위석버석 님이신가 니러 보니
혜란(蕙蘭) 혜경(蹊徑)*에 낙엽은 므스 일고
어즈버 유한(有限)훈 간장(肝腸)이 다 그출가 호노라

- 신희 -

* 혜란 혜경 : 난초 핀 지름길.

(다)

나는 예전에 장흥방의 길갓집에 살았다. 그 집은 저갓거리에 제법 가까워서 소란스러웠다. 문 옆에 한 칸짜리 초당이 있어 벗집으로 덮고 흙을 쌓았더니 그윽하고 조용해서 살 만했다. 그러나 초당이 동쪽으로 치우쳐 햇볕을 받았기에 여름이면 너무 더웠다. 그래서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靜勝熱]'는 말을 당호(堂號)*로 정해 문설주에 편액을 해 걸어 두고 위안을 삼았다.

대저 고요함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몸의 고요함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의 고요함이다. 몸이 고요한 사람은, 앉고 눕고 일어나고 서는 등 모든 행동에 있어 편안함을 취할 뿐이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천하만사가 마치 촛불로 비취 보고 거북이로 점을 치는 듯하니 시원한 날씨와 더운 날씨가 무슨 상관이었겠는가?

그러므로 '고요함이 이긴다'고 한 지금의 말은 마음의 고요함을 가리킨다.

그 집에서 이십 년을 살고 이사하였다. 그로부터 삼 년이 흐른 뒤 옛집을 찾아가 보았다. 그새 주인이 바뀐 지 여러 번이지만 집은 옛 모습 그대로였다.

은은하게 처마에 들어오는 산빛, 팔팔팔 담을 따라 도는 골짜기 물, 밀랍으로 발라 번들번들한 살창, 쪽빛으로 물들여 놓은 늘어진 천막.

(중략)

내가 여기에 살던 시절은 집안이 번성하던 때였다. 선친께서 승명전에 봉직하실 때라, 퇴근하신 밤이면 우리 형제들이 모시고 앉아 학문과 예술을 담론하고 옛일을 기록하거나, 시를

읽거나 거문고를 들었으니 유중영의 옛일*과 비슷하였다. 그 즐거움을 잊을 수는 없건마는 다시 되찾을 수는 없다!

『서경』에 '그릇은 새것을 찾고, 사람은 옛 사람을 찾는다.'라고 했다. 집 역시 그릇과 같이 무언가를 담는 부류이긴 하나, 사람은 집이 아니면 몸을 붙여 머물 데가 없고 집보다 더 거처를 많이 하는 것은 없으므로, 집은 그릇보다는 사람에게 가깝다 하겠다. 그러니 어찌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렇지만 인간사가 벌써 바뀌어,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하므로 이 집에 다시 살고 싶지는 않다. 마땅히 임원(林園)*에 집터를 보아 집을 지어서 옛 이름의 편액을 걸어 옛집에서 지냈던 뜻을 잊지 않으려 한다.

누군가는 '임원이 이미 고요하거늘, 지금 다시 '고요함이 이긴다고 하면 또한 군더더기가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나는 답하리라. '고요한데 또 고요하니, 이것이야말로 고요함이라네.'라고.

- 유본학, 「옛집 정승초당을 둘러보고 쓰다」-

* 당호 : 집에 붙이는 이름.

* 유중영의 옛일 : 당나라 때 문신 유중영이 늘 책을 가까이하며 자식들을 가르치던 일.

* 임원 : 산림.

아래에 제시된, 세 가지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품어읽기 적용

기초 문학 해석

대립항 활용

R

Reading &

T

hinking

소설분석연습

문학이론을 배운 후 실제 소설 분석에 적용하는 것은 중요해요. 이 과정을 통해 이론적 지식을 실제 문학 작품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이는 수능과 같은 시험에서 소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Day 08

01. 2021학년도

〈보 기〉

이 작품은 신체의 감각을 활용해 '나'의 체험을 다양하게 형상화한다. 청각을 통해 현실에 대한 타인과의 인식 차이를 나타내거나, 과거 경험을 후각화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시각을 통해서는 긴장 상태에서 극대화된 감각 체험을 보여주는 한편 전쟁의 실상을 체험하면서 갖게 된, 현실에 대한 체념을 드러낸다. 또한 체념 상태를 흔드는 사건을 주시하면서 생기는 변민을, 행동을 통해 제시한다. 이는 '나'가 사막 같은 현실에 발을 내딛는 계기로 작용한다.

나는 집에 도착한 그 첫 순간에 베일에 가린 듯이
 ⑥ 모든 사물, 모든 사람들로부터 차단된 나 자신을 느꼈다. 집에서 맞는 첫날 아침을 나는 이상한 비현실감 속에서 맞았다. "이런 전선에서 두부 장수 종소리, TV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 수돗물이 넘치는 소리가 웬일일까?"라고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던 것이다. '이런 전선에서'란 느낌은 어떤 긴박한 위기에 대처한 생생한 의지였다. 그것은 아직도 내 몸에 밴 전쟁 냄새였다. 그런데 두부 장수 종소리, 유행가 소리 따위를 의식했을 때 나는 뭔가 맥이 탁 풀리는 것 같았다. 나의 안에 있는 긴박감에 비해서 밖은 너무도 무의미하고 태평스럽고 어찌면 패덕스럽기까지 했다. 나미도, 학교 공부도, 또 나로부터 그토록 수많은 밤을 앓아 갔던 아틀리에에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나는 그것들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하등의 흥미도 관심도 없었다. 나날이 권태스럽고 짜증스럽기만 했다. 이따금 나는 내 안의 긴장에 대해서, 적어도 숨김없는 그 진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하려 애써 보았다. 그러나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 이제 생각이 난다. 며칠 전 다방에서의 일이. 실내엔 담배 연기가 짙 차 있었고 선정적인 허스키로 어떤 여자가 느린 곡조로 노래를 들려주고 있었다. 어찌다가 내가 나미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나는 다음과 같이 그 얘기를 시작했다.

나는 D 고지에서 전투 중인 ○○ 연대 근처까지 물을

실어다 주라는 명령을 받았어. 음료수가 떨어져서 전 연대원이 전투는 고사하고 타는 듯한 갈증과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었어. T에서 거기까진 팔십 킬로 거리였지. 나와 한병장은 밤중에 급수차를 몰아 T를 떠났어. 한 치 앞도 가릴 수 없는 어둠과 정적. 목선듯한 엔진 소리는 어둠과 정적의 벽에 부딪혀 바로 우리의 귓가에서 부서지고, 부챗살 모양으로 어둠이 지워진 헤드라이트의 반경 속에선 사물이 극도로 정밀해져 마치 입체 영화에서처럼 눈 속으로 뛰어들었지. 그 정밀함이란 길바닥에 튀구는 돌에 묻은 티, 풀포기에 매달려 잠자는 벌레 따위의 미세한 것들까지도 죄다 눈에 잡히는 듯했어. 나는 온갖 사물들이 바로 내 심장에 맞닿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전엔 한 번도 가져 보지 못했어. 이따금씩 여우나 늑대 따위들이 길을 횡단하여 쏜살같이 사라지곤 했어. 어둠 속에서 한가로이 떠돌던 나방이 떼들은 갑작스런 불빛에 방향 감각을 잃고 윈도에 머리를 부딪혀 빗방울처럼 떨어져 죽었고. 나는 운전하고 있는 한병장의 팔을 건드리며 유리창을 가리켰지. 그는 겁에 질린 해쓷은 표정으로 나를 힐끔 곁눈질했을 뿐이야. 그렇지, 혈관 속을 움직이는 피의 선화마저 느낄 듯한 이 비상한 감각, 그리고 심연에서 샘처럼 솟아오르는 넘칠 듯한 생동감이 없이는, 저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나방이 따위야 아무것도 신기할 것이 없지. 라고 생각하며 나는 혼자서 빙긋 웃었어.

한병장이 다시 얼굴을 힐끔 둘러며 잡아 늘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차일병은 무섭지 않나?" "아뇨, 전연." "대단하군. 여기서 적이 언제 어디서라도 나타날 수 있지." "저는 적보다 진정으로 무서운 건 무감각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제대하면 곧장 결혼할 거야." "언젠니까, 제대가?" "석 달 남았지." "저는 지금까지 마치 꿈을

[A] 꾸다가 깨어난 것 같아요. 이곳에 온 뒤론 바로 생명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엔진이 고장났지. 몇 시간 지체하고 나니 벌써 동이 트더군. 이제부터 정말 위험이 시작된 것이라 싶더군. 왜냐하면 적의 정찰 비행에 발견되면 공중 사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데다 불별 같은 폭염이 사정없이 쏟아져 그도 또한 견디기 어려운 문제였지.

(중략)

아까부터 나는 창 옆에서 노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도 그가 그토록 진지한 얼굴로 잃어버린

물건을 계속 찾을 것인지, 대체로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노인이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난다면 무려한 가운데서도 어떤 안정성을 획득하고 있던 나의 생활은 송두리째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가 창밖에서 뭔가 열심히 찾고 있는 한 나는 계속 도전을 받는 셈이기에. 때문에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노인이 찾고 있는 ⑥물건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런저런 것을 알아보노라면 노인의 그와 같은 숙연한 태도와 잃어버린 물건 사이의 상관관계도 알게 될 것이다. 아무튼 이제 나는 그와 한마디 얘기라도 나눠 보지 않으면 못 견딜 것같은 심정이다.

드디어 자전거에 짐을 싣고 공터 안으로 들어오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잡힌다. 그 걸음 개가 종종걸음으로 따르고 있다. 어제와 거의 같은 장소에서 노인은 자전거를 멈추고 짐을 내린다. 비치파라솔·괘짱·연탄불 따위들이 착착 있을 곳에 놓여진다. 그런데 얼마 후에 나를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 준비를 끝낸 노인은 이내 포장 안에서 빠져나와 개를 데리고 물웅덩이

[B]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개는 하루 사이 아주 눈에 띄게 쇠약한 모습이고, 노인도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긴 하나 끈질긴 어떤 힘이 그의 전신에서 면면히 솟아 나오고 있는 듯하다. 나는 완전히 안정을 잃고 방 안을 오락가락했다. 믿어지지 않는다. 거짓말이다. 무엇이 노인에게 저토록 소중한게 여겨진단 말인가. 아니, 노인은 무슨 실없는 망상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방에서 뛰쳐나왔다.

- 서영은, 「사막을 건너는 법」-

아래에 제시된 세 가지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물 구조 시각화

플롯 분석

플롯 시각화

20
24
VER
/

이채문 — 홍성민
공저



해설편

수능
꼭어 코딩

차례

독서편	5
한눈에 보는 답안지	5
변형문제해설	6
변형문제해설에 대한 설명	7
01. 2021학년도	8
Day 5	8
Day 6	12
Day 7	16
Day 8	24
02. 2020학년도	32
Day 9	32
Day 10	36
Day 11	40
03. 2024학년도	44
Day 12	44
Day 13	48
Day 14	52
Day 15	56
Day 16	60
지문분석지	65
지문분석지에 대한 설명	66
Day 5	67
Day 6	70
Day 7	75
Day 8	81
Day 9	87
Day 10	92
Day 11	99
Day 12	107
Day 13	108
Day 14	113
Day 15	118
Day 16	121

문학편 5

한눈에 보는 답안지 127

시분석지 128

01. 2021학년도 129
 Day 05 129

02. 2020학년도 139
 Day 06 139

03. 2024학년도 148
 Day 07 148

소설분석지 159

01. 2021학년도 160
 Day 08 160
 Day 09 165

02. 2020학년도 170
 Day 10 170
 Day 11 175

03. 2024학년도 180
 Day 12 180
 Day 13 185

독서편

한눈에 보는 답안지

DAY5

23551/ 13451

DAY6

12345/ 12413

DAY7

14324/ 534

55312/ 44245

DAY8

32415/ 22415

13424/ 5124

DAY9

42453/ 1124

DAY10

33421/ 452

DAY11

15124/ 342

DAY12

25213/ 435

DAY13

24235/ 4231

DAY14

51543/ 2132

DAY15

12344/ 44521

DAY16

15131/ 24231

※ DAY17~24까지는 실전문제며, 문제편 95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설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활용하여 여러분들의 이해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연습을 EBS해설지를 통해서 해보셔야 합니다.

DAY17

14534

DAY18

53142

DAY19

2244/ 22452

DAY20

5131

DAY21

134553

DAY22

351/ 5322

DAY23

315

DAY24

1445

R eading &
T hinking

변형문제해설

수능 변형 문제 해설에는 특별한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해설편 5페이지를 꼭 살펴보세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해설지를 최대한 활용하면 수능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해설지를 이용하면 문제의 구조와 해결 방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Day 5

01. 2021학년도

[1~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8세기 북학파들은 청에 다녀온 경험을 연행록으로 기록하여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는 북학론을 구체화하였다. 이들은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들의 북학론도 차이를 보였다. 이들에게는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중화 관념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각각 다르게 반영된 것이다. 1778년 함께 연행길에 올라 동일한 일정을 소화했던 박제가와 이덕무의 연행록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확인된다. 북학이라는 목적의식이 강했던 박제가가 인식한 청의 현실은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이었다. 그가 쓴 『북학의』에 묘사된 청의 현실은 특정 관점에 따라 선택 및 추상화된 것이었으며, 그런 청의 현실은 그에게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이기도 하였다. 중화 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당시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북학론의 밑바탕이 되었다.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당시 주류의 견해에 대해 그는 의리 문제는 청이 천하를 차지한 지 백여 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소멸된 것으로 여기고, 청 문물제도의 수용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논하며 북학론의 당위성을 설파하였다. 대체로 이익 추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주자학자들과 달리,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하고 양반도 이익을 추구하자는 등 실용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덕무는 「입연기」를 저술하면서 청의 현실을 객관적 태도로 기록하고자 하였다. 잘 정비된 마을의 모습을 기술하며 그는 황제의 행차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가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청 문물의 효용을 도외시하지 않고 박제가와 마찬가지로 물질적 삶을 중시하는 이용후생에 관심을 보였다. 스스로 평등견이라 불렀던 인식 태도를 바탕으로 그는 당시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였다. 이런 시각에서 그는 청과 조선은 구분되지만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즉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화된 것을 보고 비통한 감정을 토로하며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등 자신이 제시한 인식 태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0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덕무는 청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려고 노력하였다.
- 박제가는 『북학의』를 통해 청의 현실을 묘사했다.
- ③ 박제가는 주자학자들의 이익 추구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대조되는 입장을 보였다.
- ④ 박제가는 청의 문물제도 수용을 주장하였다.
- ⑤ 이덕무는 황제 행차 준비와 민생의 무관함을 지적하였다.

02.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덕무는 당시 청에 대한 찬반 양론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였다.
- ② 박제가는 조선이 중화 관념에 따라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제가와 이덕무는 1778년에 함께 연행길을 다녀왔다.
- ④ 이덕무는 조선이 청을 배우면서도 자신의 풍토에 맞게 살아가도록 긍정하였다.
- ⑤ 박제가는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보았다.

03.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박제가와 이덕무 모두 물질적 삶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 ② 박제가는 청 문물제도 수용의 이익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논하였다.
- ③ 18세기 북학파는 청의 문물제도 수용을 주장하였다.
- ④ 이덕무는 청과 조선의 가치 모두를 인정하였다.
- 박제가는 청이 천하를 차지한 지 백여 년 후의 현실을 인정하였다.

04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박제가는 중화와 합치되는 발전 방향을 지향하였다.
- ② 박제가는 청의 문물제도를 조선의 발전 방향으로 보았다.
- ③ 이덕무는 평등견을 바탕으로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를 인식했다.
- ④ 이덕무는 청의 현실과 조선의 현실 사이의 객관적 차이를 기술했다.
- 이덕무는 청과 조선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선택된 주제 단어

[주제1] 북학파 / [주제2] 중화 관념 / [주제3] 문물제도

05. [주제1]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주제1]는 18세기 조선에서 활동한 학자들의 집단이었다.
- ② [주제1]의 북학론은 당대 조선의 문물제도 개선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를 포함했다.
- ③ [주제1]의 연행록은 후대 연구자들에게 조선 시대 학자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 ④ [주제1]는 청나라의 현실을 조선의 발전 방향과 연계하여 바라보았다.
- ⑤ [주제1]의 활동은 당시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

06. [주제1]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주제1]는 청의 발전된 문물제도를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 ② [주제1]의 구성원들은 개인의 학문적 경향에 따라 각기 다른 북학론을 제시했다.
- ③ [주제1]는 조선 내에서 청나라 문물을 학습하고 도입하는 것을 지향했다.
- ④ [주제1]는 실제 청나라 방문을 기반으로 한 자료를 통해 조선 내의 개혁을 논의하는 데 일조했다.
- ⑤ [주제1]의 북학론은 조선이 청나라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여 자체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07. [주제2]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제2]는 조선인들이 청의 문물제도를 보는 관점에 영향을 미쳤다.
- ② 박제가는 [주제2]의 절대성을 바탕으로 조선의 발전 방향을 주장했다.
- [주제2]는 조선과 청의 문화적, 제도적 차이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 ④ [주제2]는 북학파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접근 방식으로 해석되었다.
- ⑤ [주제2]에 따르면, 비중화권 문화는 중화 문화에 반드시 종속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08. [주제2]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제2]는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척도로 여겨졌다.
- ② 18세기 북학파의 학자들은 [주제2]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였다.
- ③ [주제2]는 조선 시대에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의미했다.
- ④ [주제2]를 수용함으로써 조선은 더 넓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한다는 인식을 강화하였다.
- ⑤ [주제2]는 조선 사회 내에서 청의 문물제도에 대한 재평가를 유도했다.

09. [주제3]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제3]의 수용은 북학파가 제시한 조선의 발전 방향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 ② [주제3]는 북학파에 의해 조선의 발전을 위한 모델로 고려되었다.
- ③ 북학파의 연행록은 [주제3]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인상을 기록했다.
- ④ 이덕무는 [주제3]에 대해 객관적 태도로 접근하여 묘사했다.
- [주제3]의 성공적인 도입은 조선의 국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었다.

10. [주제3]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주제3]는 18세기 북학파가 중요하게 여긴 청나라의 사회적 및 문화적 체계였다.
- ② 박제가의 북학론에 의하면, [주제3]는 조선의 발전을 위해 참조되어야 했다.
- ③ [주제3]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북학파 내에서 중요한 학문적 논쟁거리였다.
- ④ [주제3]는 동아시아 문화권 내에서 조선이 겪고 있던 문화적, 정치적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 ⑤ 북학파는 [주제3]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조선의 현실을 평가하려고 노력했다.

①번

정답: ②
이덕무는 『북학의』가 아닌 「입연기」를 저술했습니다. 「북학의」는 박제가가 저술한 책으로, 청나라의 현실을 조선의 발전 방향으로 제시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이덕무의 「입연기」는 청나라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과 평가를 기록한 것으로, 이덕무의 북학론과 관점을 보여줍니다.

②번

정답: ③
윗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박제가와 이덕무가 1778년 함께 여행길에 올랐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박제가와 이덕무 모두 1778년에 여행길을 다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박제가 여행 이후에, 이덕무는 1778년에 여행길을 다녀왔다."라는 진술은 거짓입니다. 두 사람은 동일한 해에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③번

정답: ⑤
박제가가 청의 지배를 인정하고 그들의 문물과 제도를 조선의 발전 방향으로 삼자고 주장했지만, 이는 현실의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청이 차지한 천하의 '이상'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박제가는 청이 천하를 차지한 지 백여 년 후의 이상을 인정하였다."는 진술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박제가의 관점은 실용적인 현실 수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반드시 청의 이상을 완전히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④번

정답: ⑤
이덕무가 청과 조선이 공존할 수 없다고 보았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이덕무는 당시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청과 조선이 구분되지만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고 보았으며,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청과 조선이 공존할 수 있다는 시각을 반영합니다.

⑤번

정답: ①
북학파는 18세기 조선에서 활동한 학자들의 집단을 가리키며, 개별 학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집단은 청나라의 문물과 제도를 연구하고 수용하는 것을 주장하며, 조선의 사회와 문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⑥번

정답: ①
[주제1]인 북학파가 청의 퇴보한 문물제도를 수용하자고 주장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북학파는 청의 문물제도를 학습하고 이를 조선에 적용하자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들은 청의 문물제도를 단순히 퇴보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일부 면에서 조선이 참고하고 배울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박제가는 청의 현실을 조선의 발전 방향에 대한 가치 기준으로 보았고, 이덕무는 청의 문물의 효용성을 인정하며 실용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북학파가 청의 '퇴보한' 문물제도를 수용하자고 주장했다고 보기보다는, 그들이 청의 문물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조선의 발전을 위해 적용하자고 주장한 것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⑦번

정답: ③
북학파는 중화 관념을 통해 조선과 청 사이의 문화적, 제도적 차이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청의 문물제도와 문화를 조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참고했지만, 이는 조선과 청 사이의 공통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차이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주제2] 중화 관념은 조선과 청의 문화적, 제도적 공통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오히려 이 관념은 두 문화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학문적, 문화적 접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R eading &
T hinking

지문분석지

여러분이 볼 교재에는 문장마다 자세히 분석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일부 지문은 여러분이 더 생각해볼 수 있게 분석 내용을 일부러 빼두었어요. 이런 부분을 스스로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한 공부 방법 중 하나랍니다. 이 분석활동지를 잘 사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수능 점수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접 생각하고 분석하는 연습을 통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Day 5

18세기 북학파들은 청에 다녀온 경험을 연행록으로 기록하여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는 북학론을 구체화하였다. 이들은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들의 북학론도 차이를 보였다. 이들에게는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중화 관념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각각 다르게 반영된 것이다. 1778년 함께 연행길에 올라 동일한 일정을 소화했던 박제가와 이덕무의 연행록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확인된다. 북학이라는 목적의식이 강했던 박제가가 인식한 청의 현실은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이었다. 그가 쓴 『북학의』에 묘사된 청의 현실은 특정 관점에 따라 선택 및 추상화된 것이었으며, 그런 청의 현실은 그에게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이기도 하였다. 중화 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당시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북학론의 밑바탕이 되었다.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당시 주류의 견해에 대해 그는 의리 문제는 청이 천하를 차지한 지 백여 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소멸된 것으로 여기고, 청 문물제도의 수용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논하며 북학론의 당위성을 설파하였다. 대체로 이익 추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주자학자들과 달리,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하고 양반도 이익을 추구하자는 등 실용적인 입장을 보였다.

키워드 분석

북학파, 연행록, 문물제도, 중화 관념, 박제가, 이덕무, 실용주의

키워드 중요성 파악

- 북학파: 18세기 지식인 그룹으로 청의 문물제도를 연구하고 수용하자는 주장을 펼친 인물들
- 연행록: 청나라 방문 경험을 기록한 문서로 당시의 인식과 문화 교류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
- 문물제도: 청나라의 문화와 제도로, 조선의 발전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 중화 관념: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으로 여겨지는 사상으로, 조선과 청의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함
- 박제가/이덕무: 북학파의 대표적 인물로, 각자의 연행록을 통해 청에 대한 다른 시각을 보여줌
- 실용주의: 이익 추구를 긍정하는 사상으로, 당시 주자학자들의 이익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대비됨

지문 세부 분석

1번째 부분:

"18세기 북학파들은 청에 다녀온 경험을 연행록으로 기록하여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는 북학론을 구체화하였다."

#북학파 #연행록 #북학론 #청 #문물제도

[북학파는 청나라의 문물제도를 조선에 도입하자는 북학론을 주장했으며, 이는 그들의 청나라 방문 경험과 관찰을 기록한 연행록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2번째 부분:

"이들은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들의 북학론도 차이를 보였다."

#개인적학문성향 #북학론의차이

[북학파 내에서도 각자의 학문적 관심과 성향에 따라 북학론에 접근하는 방식과 주목하는 영역이 달랐다.]

3번째 부분:

"이들에게는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중화 관념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각각 다르게 반영된 것이다."

#중화관념 #청의현실인식

[북학파는 중화 관념을 문명의 척도로 여겼으며, 이 관념은 청나라에 대한 그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4번째 부분:

"박제가와 이덕무의 연행록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확인된다."

#박제가 #이덕무 #연행록의차이

[박제가와 이덕무는 같은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행록에는 개인적 인식의 차이가 나타난다.]

5번째 부분:

"박제가가 인식한 청의 현실은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이었다."

#박제가 #청의현실 #가치기준

[박제는 청나라의 현실을 단순한 관찰 대상이 아니라 조선이 추구해야 할 모델로 인식했다.]

6번째 부분:

"그가 쓴 『북학의』에 묘사된 청의 현실은 특정 관점에 따라 선택 및 추상화된 것이었다."

#북학의 #선택적추상화

[『북학의』에서 박제는 청나라의 현실을 자신의 관점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상화하여 묘사했다.]

7번째 부분:

"중화 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당시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북학론의 밑바탕이 되었다."

#중화관념의절대성 #조선의발전방향

[박제가는 중화 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조선이 중화 문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번째 부분: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당시 주류의 견해에 대해 그는 의리 문제는 청이 천하를 차지한 지 백여 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소멸된 것으로 여기고, 청 문물제도의 수용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논하며 북학론의 당위성을 설파하였다."

#명의의리 #청문물제도의수용 #북학론의당위성

[박제가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당시의 주류 견해를 비판하고, 청나라 문물제도의 수용이 가져올 이익을 강조하며 북학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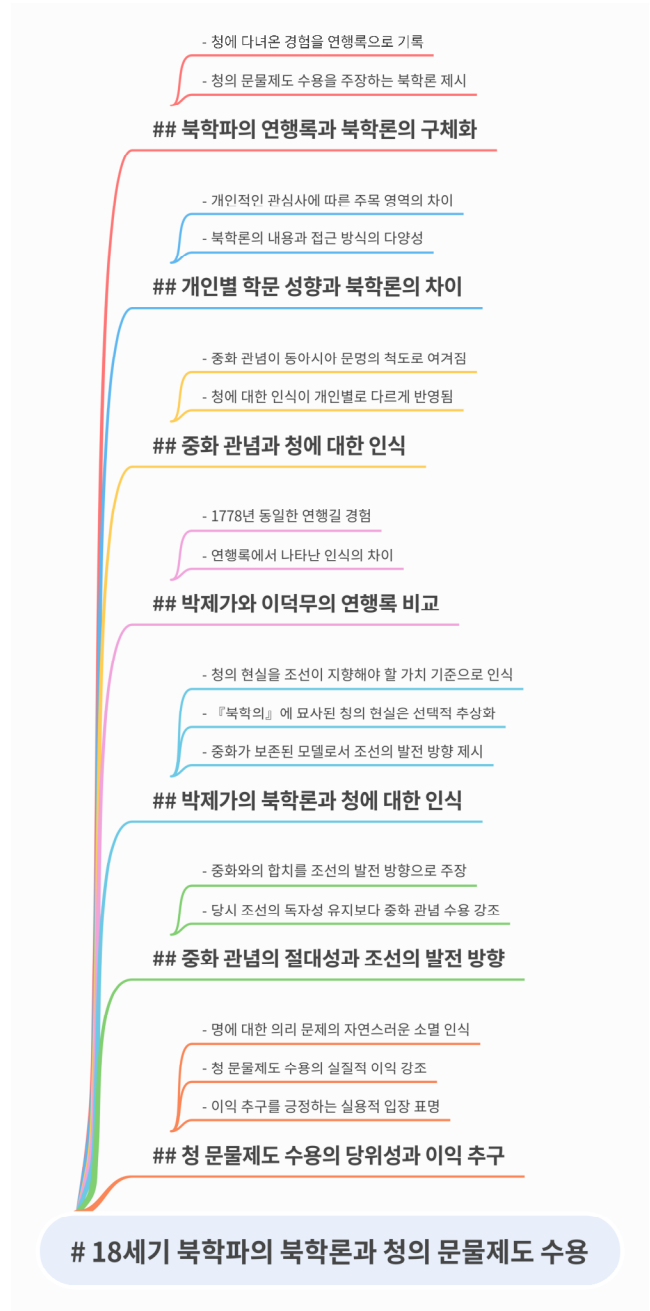
9번째 부분: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하고 양반도 이익을 추구하자는 등 실용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익추구 #실용주의

[박제가는 이익 추구를 부정적으로 보는 주자학자들과 달리,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보고, 양반 계층도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실용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 눈에 보는 문단



문학편

한눈에 보는 답안지

※ DAY17~24까지는 실전문제며, 문제편 218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설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활용하여 여러분들의 이해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연습을 EBS해설지를 통해서 해보셔야 합니다.

DAY14

2114/ 425

DAY15

55533/ 524

DAY16

25131/ 155

DAY17

3433/ 424

DAY18

2135/ 213325

DAY19

1412/ 234

R eading &
T hinking

시분석지

제가 여러분에게 시분석지를 드렸어요. 하지만 이 예시가 항상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제마다 시를 분석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예시를 통해 여러분이 시 분석을 직접 해보고, 제가 준 자료와 비교해보면 실제 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 어떻게 시를 분석하는지 배우고, 실전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Day 05

01. 2021학년도

〈보 기〉

(가)에는 천상의 시간과 지상의 시간이 모두 나타난다. 천상에서는 지상과 달리 생로병사의 과정 없이 끝없는 사랑이 지속된다. 이러한 시간적 질서는 지상에 내려온 화자를 힘겹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화자는 지상의 물리적 시간을 심리적으로 변형하여 자신의 심경을 드러낸다.

(가)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혼성 연분(緣分)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나 하나 접어 잇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디 노여 업다
 평생(平生)에 원(願)호요디 혼디 네자 호얏더니
 늙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그리논고
 엇그제 님을 피셔 광한던(廣寒殿)의 올낫더니
 그 더디 엇디호야 하계(下界)에 내려오니
 을 저기 비슨 머리 헛틀언 디 삼 년일쇠
 연지분(胭脂粉) 잇너마는 늘 위호야 고이 홀고
 마음의 먹친 실음 텬텬(疊疊)이 빠져 이셔
 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
 인성(人生)은 유한(有限)혼디 시름도 그지업다
 무심(無心)혼 세월(歲月)은 물 흐르듯 호는고야
 염양(炎涼)이 재를 아라 가는 듯 고터 오니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동풍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헤터 내니
 창(窓) 밝기 심근 미화(梅花) 두세 가지 띄여세라
 굿득 냉담(冷淡)혼디 암향(暗香)은 므스 일고
 황혼의 들이 조차 벼마티 빗최니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미화 것거 내여 님 겨신 디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 정철, 「사미인곡」-

[보기]가 없을 때, 시의 해석

꼼꼼히 짚음

이 몸은 삼기실에 계신 제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렬한 연분이 과연 어떤 운명인지, 나는 혼자서 이를 견디고 있고, 님은 나를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이 마음과 이 사랑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동안 바라오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나이 들어 이를 수 없게 되어 마음만 아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님을 만나 광한전에서 보냈던 시간이 떠오릅니다. 그때 이후로 어떻게 하계에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세월이 흘러 비슨 머리는 형클어졌고, 연지분은 이제 마르지 않는데, 마음의 깊숙한 실망감은 쌓이기만 합니다. 한숨만 나오고 눈물만 흐르네요. 인생은 유한하고, 무심한 세월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변덕스러움을 잘 알고 있기에, 볼 것도, 기다릴 것도, 할 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동풍이 불어 쌓인 눈을 녹이듯, 창가에 심은 매화가 몇 가지 꽃을 피웠습니다. 냉담한 듯한 그 암향은 어떤 의미인지, 황혼이 지는 것조차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반갑기도 하고, 님이신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매화 아래에서 님을 기리며 보내는 시간들, 님이 이를 보고 무엇을 느낄지 궁금합니다.

기초 문해 해석

"사미인곡"은 조선 시대의 문인 정철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의 제목 "사미인곡"은 '버림받은 아내의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며, 이는 시의 주제와 깊이 연결됩니다. 시는 버림받은 아내의 슬픔과 외로움을 표현하며, 그녀의 애절한 감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시의 배경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대적 배경을 조선 시대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시의 언어와 문화적 맥락에서 드러납니다. 배경의 모호성은 시의 보편적인 감정 표현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시의 중심 인물은 버림받은 아내로, 시는 주로 첫 번째 인칭 관점에서 그녀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이 관점은 독자가 그녀의 감정에 깊이 공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시의 주요 메시지는 버림받은 아내의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인생의 무상함에 대한 성찰입니다. 정철은 섬세한 언어와 이미지를 사용해 이러한 감정과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시에는 여러 상징적 이미지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황혼과 눈 녹는 장면은 시간의 흐름과 인생의 무상함을 상징하며, 창밖의 매화는 아름다움과 슬픔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시의 감정적 분위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적 기법으로는 반복, 상징, 은유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은 시의 감정적 표현을 강화하고, 독자가 시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시는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인생의 무상함이라는 감정과 분위기를 전달합니다. 시인은 섬세한 언어 선택과 강렬한 이미지를 통해 이러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시의 구조는 전통적인 한시 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각 연에서 반복되는 리듬과 운율은 시의 감정적 분위기를 강조합니다. 형식적인 측면은 시의 주제와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는 인생의 불가피한 변화와 감정의 깊이를 상기시킵니다. 정철은 인간의 감정과 인생의 본질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매립항 활용

정철의 "사미인곡(思美人曲)"은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시조로, 애절한 사랑과 이별의 아픔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는 정철이 사랑하는 여인과의 이별을 애달프게 그리고 있으며, 그 내용과 형식이 당시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시조의 전통적인 형식을 따르면서도, 정철은 자신만의 독특한 감성과 언어로 시를 구성했습니다.

시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면, 세 줄씩 세 편으로 구성된 이 시조는 각 편마다 서로 대립하거나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실과 이상,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과거와 현재 등이 서로 대비되며 시의 깊이를 더합니다.

비유적 표현은 이 시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며 느끼는 감정의 깊이와 복잡성을 나타내기 위해 자연 현상이나 사물들이 상징적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의 매화는 봄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시작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화자의 감정 변화를 암시합니다.

의미의 다층적 해석 측면에서, "사미인곡"은 단순히 이별의 아픔을 넘어서, 인간 존재의 한계와 시간의 흐름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T.S. 엘리엇의 '객관적 상관물' 개념을 적용하면, 시조 속의 이미지들은 화자의 내면세계와 감정을 반영하는 동시에, 보다 광범위한 인간 조건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독자와의 상호작용 측면에서는, 이 시조가 각기 다른 독자들에게 다양한 감정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독자는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투영하며, 시에서 새로운 의미나 관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가 단순한 문학 작품을 넘어, 독자 개개인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텍스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기]가 있을 때, 시의 해석

<보기> 분석

(가)의 내용은 하늘과 땅에서의 시간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하늘에서는 땅과는 달리 죽음이나 병 없이 영원한 사랑만이 계속된다고 해요. 이런 시간의 차이 때문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화자는 힘들어해요. 화자는 땅의 시간을 자신의 마음대로 바꿔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땅에서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지만 화자는 그 시간을 마음 속에서 천천히 흘러가게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화자는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시간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거죠.

R eading &
T hinking

소설분석지

제가 제공한 소설분석지는 절대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문제의 종류에 따라 분석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제가 만든 분석 과정을 직접 해보고, 제 자료와 비교해보면서 연습한다면, 실제 시험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해 주세요.

Day 08

01. 2021학년도

〈보기〉

이 작품은 신체의 감각을 활용해 '나'의 체험을 다양하게 형상화한다. 청각을 통해 현실에 대한 타인과의 인식 차이를 나타내거나, 과거 경험을 후각화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시각을 통해서는 긴장 상태에서 극대화된 감각 체험을 보여주는 한편 전쟁의 실상을 체험하면서 갖게 된, 현실에 대한 체념을 드러낸다. 또한 체념 상태를 흔드는 사건을 제시하면서 생기는 번민을, 행동을 통해 제시한다. 이는 '나'가 사막 같은 현실에 발을 내딛는 계기로 작용한다.

〈보기〉 분석

이 작품에서는 우리 몸의 느낌을 이용해서 주인공이 겪는 여러 가지 경험을 그려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소리를 듣는 청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세상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예전에 겪었던 일을 낱새로 떠올리면서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해요.

눈으로 보는 시각을 통해서는, 긴장한 상태에서 느끼는 감각이 어떻게 극대화되는지, 전쟁을 겪으며 느낀 현실에 대한 체념 같은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인공이 체념하고 있을 때 무언가 일이 생겨서 그로 인해 고민하게 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주인공이 마치 사막과 같은 힘든 현실 속에서 어떻게 발을 내딛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는 집에 도착한 그 첫 순간에 베일에 가린 듯이 @모든 사물, 모든 사람들로부터 차단된 나 자신을 느꼈다. 집에서 맞는 첫날 아침을 나는 이상한 비현실감 속에서 맞았다. "이런 전선에서 두부 장수 종소리, TV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 수도물이 넘치는 소리가 웬일일까?"라고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던 것이다. '이런 전선에서'란 느낌은 어떤 긴박한 위기에 대처한 생생한 의지였다. 그것은 아직도 내 몸에 밴 전쟁

냄새였다. 그런데 두부 장수 종소리, 유행가 소리 따위를 의식했을 때 나는 뭔가 맥이 탁 풀리는 것 같았다. 나의 안에 있는 긴박감에 비해서 밖은 너무도 무의미하고 태평스럽고 어찌면 패덕스럽기까지 했다. 나미도, 학교 공부도, 또 나로부터 그토록 수많은 밤을 앓아 갔던 아틀리에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나는 그것들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하등의 흥미도 관심도 없었다. 나날이 권태스럽고 짜증스럽기만 했다. 이따금 나는 내 안의 긴장에 대해서, 적어도 숨김없는 그 진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하려 애써 보았다. 그러나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 이제 생각이 난다. 며칠 전 다방에서의 일이. 실내엔 담배 연기가 짙 차 있었고 선정적인 허스키로 어떤 여자가 느린 곡조로 노래를 들려주고 있었다. 어찌다가 내가 나미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나는 다음과 같이 그 얘기를 시작했다.

나는 D 고지에서 전투 중인 ○○ 연대 근처까지 물을 실어다 주라는 명령을 받았어. 음료수가 떨어져서 전 연대원이 전투는 고사하고 타는 듯한 갈증과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었어. T에서 거기까진 팔십 킬로 거리였지. 나와 한병장은 밤중에 급수차를 몰아 T를 떠났어. 한 치 앞도 가릴 수 없는 어둠과 정적. 목신듯한 엔진 소리는 어둠과 정적의 벽에 부딪혀 바로 우리의 귓가에서 부서지고, 부챗살 모양으로 어둠이 지워진 헤드라이트의 반경 속에선 사물이 극도로 정밀해져 마치 입체 영화에서처럼 눈 속으로 뛰어들었지. 그 정밀함이란 길바닥에 튀구는 돌에 묻은 티, 풀포기에 매달려 잠자는 벌레 따위의 미세한 것들까지도 죄다 눈에 잡히는 듯했어. 나는 온갖 사물들이 바로 내 심장에 맞닿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전엔 한 번도 가져 보지 못했어. 이따금씩 여우나 늑대 따위들이 길을 횡단하여 쏜살같이 사라지곤 했어. 어둠 속에서 한가로이 떠돌던 나방이 때들은 갑작스런 불빛에 방향 감각을 잃고 윈도에 머리를 부딪혀 빗방울처럼 떨어져 죽었고. 나는 운전하고 있는 한병장의 팔을 건드리며 유리창을 가리켰지. 그는 겁에 질린 해쓷한 표정으로 나를 힐끔 결눈질했을 뿐이야. 그렇지, 혈관 속을 움직이는 피의 선회마저 느낄 듯한 이 비상한 감각, 그리고 심연에서 샘처럼 솟아오르는 넘칠 듯한 생동감이 없이는, 저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나방이 따위야 아무것도 신기할 것이 없지, 라고 생각하며 나는 혼자서 빙긋 웃었어.

한병장이 다시 얼굴을 힐끔 돌리며 잡아 늘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 "차일병은 무섭지 않나?" "아뇨, 전연." "대단하군. 여기서 적어 언제

[A] 어디서라도 나타날 수 있지." "저는 적보다 진정으로 무서운 건 무감각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제대하면 곧장 결혼할 거야." "언젠니까, 제대가?" "석 달 남았지." "저는 지금까지 마치 꿈을 꾸다가 깨어난 것 같아요. 이곳에 온 뒤론 바로 생명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엔진이 고장났지. 몇 시간 지체하고 나니 벌써 동이 트더군. 이제부터 정말 위험이 시작된 것이라 싶더군. 왜냐하면 적의 정찰 비행에 발견되면 공중 사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데다 불별 같은 폭염이 사정없이 쏟아져 그도 또한 견디기 어려운 문제였지.

- 서영은, 「사막을 건너는 법」-

플롯 분석

1번째 부분: "나는 집에 도착한 그 첫 순간에 베일에 가린 듯이 모든 사물, 모든 사람들로부터 차단된 나 자신을 느꼈다." #소외감 #차단

- 주인공이 느끼는 소외감과 자신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차단된 느낌을 강조합니다. 이는 전쟁과 일상 사이의 괴리를 나타내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2번째 부분: "이런 전선에서 두부 장수 총소리, TV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 수도물이 넘치는 소리가 웬일일까?" #전선 #일상생활의소리

- 전쟁터의 긴박함과 일상의 평범한 소리들 사이의 대조를 드러내며, 주인공의 내면적 갈등을 나타냅니다.

3번째 부분: "나는 그것들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하등의 흥미도 관심도 없었다." #무관심 #관계재개

- 주인공이 일상의 관계나 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잃었음을 나타내며, 전쟁 경험 후의 변화된 심리 상태를 반영합니다.

4번째 부분: "나는 D 고지에서 전투 중인 ○○ 연대 근처까지 물을 실어다 주라는 명령을 받았어." #명령 #전투

- 주인공이 받은 명령과 전투 상황을 소개하며, 전쟁의 현실과 주인공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5번째 부분: "한 치 앞도 가릴 수 없는 어둠과 정적." #어둠 #정적

- 주인공이 경험하는 어둠과 정적은 긴장감과 불확실성

을 나타내며, 전쟁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6번째 부분: "혈관 속을 움직이는 피의 선회마저 느낄 듯한 이 비상한 감각" #감각 #생동감

- 주인공이 느끼는 강렬한 감각과 생동감은 전쟁 상황에서의 생생한 체험을 나타냅니다.

7번째 부분: "저는 적보다 진정으로 무서운 건 무감각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무감각 #두려움

- 주인공이 느끼는 진정한 두려움은 적이 아니라 무감각함에 있음을 나타내며, 전쟁의 심리적 영향을 강조합니다.

8번째 부분: "그런데 중간에서 엔진이 고장났지." #엔진 고장 #위험

- 엔진 고장은 주인공이 직면한 새로운 위험을 나타내며, 전쟁의 불확실성과 긴박함을 강조합니다.

인물 구조 시각화



수능 국어, 이제는 전략이다!

수능 국어는 광범위한 지식과 빠른 사고력을 요구하며, 때로는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로 학생들을 도전하게 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도전에 맞서기 위한 전략적 접근법을 제공합니다.

이 책을 통해 학생들은 수능 국어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수능 국어, 이제는 전략이다!"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들이 수능 국어를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을 배우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큼니다.

이 문구는 수능 국어 공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학생들이 자신만의 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수능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수능 국어, 단순 암기에서 벗어나 실력으로 승부하자!

수능 국어 공부는 종종 단순한 암기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학습과 성취는 이해와 실력 향상에서 비롯됩니다. 이 책은 바로 그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수능 국어, 단순 암기에서 벗어나 실력으로 승부하자!"라는 문구는 학생들이 수능 국어를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을 통해 실제적인 독해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이 책은 문장, 문단, 그리고 전체 글의 구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복잡한 글을 해석하고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다양한 예시와 실전 문제를 통해 학생들이 이론을 실제 시험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시험에서 필요한 비판적 사고와 분석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학생들은 수능 국어 공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암기를 넘어서 진정한 학습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학생들이 수능 국어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책은 수능 국어를 단순히 '과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사고의 깊이를 탐구하는 여정으로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